

해남, 올해 내실있는 군정운영 성적도 빛났다

농정업무 대상·지역경제 4관왕 등 기관표창 역대 최다 88건 선정 매니페스토 평가 4년연속 최우수·지방자치경영대전 장관상 등 기염

해남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각 분야별 종합평가에서 기관표창 88건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9건에 비해 9건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해남군정이 대외적인 좋은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안부장관상 수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대상,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상반기 재정집행 최우수상,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어린이 안전대상 국무총리상, 지

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 전국단위 분야별 주요상을 수상했다.

또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기초단체장 공약평가 4년 연속 SA등급을 획득하고, 제안활성화 평가에서도 도내 유일 우수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3년연속 행안부장관상,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우수기관 선정 등 종합적인 군정의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속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모범 사례들이 다수 인정받아 눈길을 끌었다.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 국무총리상,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평가 최우수상 등 3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경제 관련 4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해남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도 두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과 농식품 유통평가 대상, 축산시책평가 최우수상, 식량원예업무 최우수상으로

농정업무 수상을 휩쓸며 이어 전기훈련 유치설적평가 4년연속 최우수,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최우수상, 으뜸마을 만들기 시군평가 최우수 등 주요 시책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더불어 코로나 위기관리평가 대상, 서울 국제관광전 최우수마케팅상, 산림복지서비스평가 최우수, 다산안전대상 평가 우수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의 성과를 올렸다.

명령관 군수는 "역대 최다 기관 표창 수상은 군정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공직자와 군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이 함께 일군 성과"라며 "열심히 일한 평가로 좋은 성적을 거둔데 큰 보람을 느끼며 내년에 전 군민이 합심해 해남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이상의 합평군수, 올해 급여 전액 장학금 기부 4629만원 기탁... 인재양성기금 100억 조성 동참

이상의 합평군수가 합평인재양성기금 100억 원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급여 전액을 기금으로 기탁했다.

26일 합평군에 따르면 최근 이 군수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급여 4629만원을 합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탁했다.

이 군수는 민선 7기 후반기인 2020년 군수 후보시절부터 무보수로 군민에게 봉사하겠다고 급여 반환을 약속했으며, 재임 이후 현재까지 총 2억 6125만원을 지역 인재양

성을 위해 기부한 바 있다.

이 군수는 "합평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급여를 기탁했다"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금은 1993년 8월 법관민 애환운동으로 시작했으며 2030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평군은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기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와 군민 등 다양한 참여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합평=김영희 기자



신안, 국무총리 표창 수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분야

신안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신안군은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발굴 및 예산집행 실적, 긴급복지 신속처리율,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계지원금 추진 실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적과 노력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신안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전년대비 27% 증가) ▲기초생계급여 예산 집행(99.9% 집행) ▲매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한 선제적 권리구제(85세대 권리구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하게 긴급복지 지원(1,200세대 7억원 지원) ▲적정급여 관리를 위한 소득·재산 수시 확인 등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이는 평소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는 신안군에서 읍·면사무소 방문간호사 배치로 보건·복지 통합연계서비스 시행,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대폭 확충, 복지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연계 지원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국제생태관광 가치 인정

구들장논보존협 국제생태관광 어워드 후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우수성 세계에 알려

완도군은 26일 청산도구들장논보존협회와 완도군이 최근 스페인 세비아에서 개최된 '2022 GSTC(국제생태관광 어워드)'에서 파이널리스트 상 수상을 위한 3개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다.

'국제생태관광 어워드'는 아시아 생태관광협회가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힘써온 주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취지에서 제정한 상이다.

청산도구들장논보존협회와 완도군은 청산도의 천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청산도구들장논의 보전·관리에 힘써온 점을 인정받아 3개 부문(커뮤니티 혜택, 생태관광의 혁신, 커뮤니티 캠페인)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아시아생태관광협회는 이번 행사

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 총 10개 분야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으며 파이널리스트상 시상과 최종 우수자 발표는 내년 3월 말 필리핀 실랑에서 열리는 국제생태관광박람회에서 진행한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독특한 관개 시스템과 생물종 다양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2014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2021년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등에 등재돼 있다.

한편 아시아생태관광협회는 지난 2015년 설립돼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22개국 생태관광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완도=이두식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 '매력 뛰어난 관광자원 분야' 수상

순천시의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이 '2022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한 해 동안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지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2011년 순천만습지, 2019년 낙안읍성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순천만국가정원이 '매력이 뛰어난 관광자원 분야'에서 지난 22일 본상을 받았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만과 함께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정원을 이루고 있으며, 사계절 각양각색의

아름다움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순천의 대표 관광지이다.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며 조성됐고 2015년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7년부터 순천만습지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주관 '웰니스 관광지'로 '3회 연속 선정' 되는 등 생태도시로서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2013정원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정원에 살다'를 주제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된다.

/순천=조준익 기자

광양,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16종 공급업체 21개소 선정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선정위원회가 16종의 담례품과 21개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담례품은 매실 원액, 매실 절임, 기정떡, 재첩국 등 16종이며, 시는 이달 중 공급업체와 담례품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담례품을 등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담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주민 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 담례품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공급업체의 공급계획과 담례품의 우수성, 지역경제성 반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며, "기부금은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영광, 내년 정부예산 49억 원 추가 확보

영광군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도 정부예산'에 국도 77호선 영광 백수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3건·4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영광군은 기획재정부 확정 예산 508억원과 국회 증액예산 49억원 등 총 55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증액된 국비는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41억7300만원)', '영광 e-

민의힐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200억원 규모의 사업 확정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여기에 전남 유일의 산업 박람회인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예산 일부를 국비로 확보함으로써 영광군의 미래 신성장 산업 추진 역량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다.

강종만 군수는 "국비 확보를 위해 힘써 주신 여야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전남도, 산하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2024년도 국고예산도 신성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흥 우드랜드, 문체부 '웰니스 관광지' 4회 연속 선정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4회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관광지는 2년마다 한국관광공사의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2017년 최초 지정 이후 4회 연속 선정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입지를 굳혔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을 위해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홍보·마케팅 실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했다.

우드랜드는 생태체험펜션, 편백소금찜질방 등 주요 시설물과 산림치

장흥군, 연례 콘서트 개최, 팸투어 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

장흥군은 연례 콘서트 개최, 팸투어 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최근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별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



광양, 장내 기생충 감염 양성자 투약 완료·재검사 올해 감염률 12.9%... 장내 기생충 퇴치 총력

광양시는 지역사회 기생충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시민 1,017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감염 무료 검진을 실시한 결과 광양시가 전국 장내 기생충 질환 유행지역 36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양성률(12.9%)을 보였다고 밝혔다.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광양시는 지난 5월 1,017명을 대상으로 대면 검체를 수집하고 서울 소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간흡충 등 12종의 장내 기생충을 검사한 결과, 감염률은 간흡충 30명(2.9%), 장흡충 93명(9.1%), 편충 6명(0.6%), 참굴림흡충 2명(0.2%) 순으로 높았으며, 감염률은 12.9%로 지난해 7%보다 5.9% 높게 나타났다.

시는 기생충이 검출된 대상자 126

명(131명 중 중복검역 5명)에 대해 지난 8-9월(2개월간) 전원 무료로 치료제를 투약했고, 투약 3개월이 지난에 따라 12월부터 양성자 대상으로 대면 재검사를 시행 중이며, 완치 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장내 기생충 퇴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진식 보건행정과장은 "민물고기 생식에 의한 간흡충 등 기생충 감염률이 증가 추세여서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갈, 도마 등 조리기구는 자주 소독해 사용하고 싶바란다"며, "적극적인 예방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조준익 기자